

[원 고 청 탁 서]

옥고란 부탁드립니다.

지난 1970년 창간 이래 센터는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센터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보태왔습니다.
센터는 더 좋은 잡지로 이러한 관심과 애정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에 <베갯머리 책>에 이사장님의 옥고란 신고자 청탁서를 보내드립니다.
<베갯머리 책>은 제목 그대로 베갯머리에 놓아두고 읽는 책, 즉 늘 두고두고 펼쳐 읽으며 마음속에 새겨 넣은 책을 소개하는 칼럼으로 이 시대의 사상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아껴 읽는 책을 소개하는 칼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신적 토대와 지향점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 귀한 글을 통해 센터의 독자들이 깊고 따뜻한 사색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지 명 : 베갯머리 책

게재 지면 : 센터 지면 기준 1page (A4지 1매)

원고 마감 : 2008년 3월 3일(우편, e-mail 송부 등 가능)

- 1) 책에 대한 칼럼입니다. 글의 소재와 주제 및 형식은 자유로우나 어떤 내용을 다룬 책인지, 어떻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되신 책인지, 두고두고 읽으시는 까닭은 무엇인지 담겨 있었으면 합니다.
- 2) 종교 관련 서적 등은 글의 중복 여지가 많아 가급적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 3) 소개된 책을 독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에 출간되어 구입할 수 있는 서적이어야 합니다.
- 4) 센터의 주요 독자층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입니다.
일상의 눈으로 바라본 쉽고 편안한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5) 게재된 견본 글과 그동안 편자로 참여하신 분들의 목록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이사장님을 소개할 수 있는 두세 문장의 글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원고-1>

소설보다 흥미로운 로마의 역사

<로마 제국사 Storia di Roma> 인드로 몬타넬리 Indro Montanelli

조순(명지대학교 석좌교수, 민족문화추진회장)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경제학박사를 받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초대 민선 서울시장을 지냈고 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책읽기, 등산, 바둑을 즐깁니다.

사실은 소설보다 기이하다는 말이 있듯이 역사의 기록은 정말로 재미있다. 거기에는 또 많은 교훈이 있다. 나는 로마의 역사책을 꽤 많이 읽었다. 가장 재미있는 나라의 역사를 들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로마의 역사를 권하고 싶다. 로마는 1,200여 년에 걸친 역사에서 왕정王政, 공화정共和政, 제정帝政을 모두 겪은 유일한 나라다. 그 긴 역사를 비교적 흥미롭게 요약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왜 로마의 역사가 재미있는가? 세 가지 이유를 권고 싶다. 첫째, 로마는 유럽 최초의 큰 나라였고 아주 오랫동안 번영한 나라인데 그 번영의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에 대해 가지는 선입견은 대부분 사실과 멀다. 로마의 전공과 제도는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에 의해 계승되었기 때문에 유럽인의 원형을 알자면, 로마의 역사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둘째, 어떤 역사건 재미가 있자면 사건이 많아야 하는데 로마의 역사에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다. 우선 전쟁이 많았다. 로마는 그 역사상 약 350여 차례의 큰 전쟁이 있었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다. 공화정 말기의 영웅단, 이단테면 그라쿠스 형제, 마리우스, 키케로, 카이사르, 안토니우스, 폼페이우스, 브루투스 등은 모조리 자객의 손에 쓰러졌다. 로마 제국이 동서로 갈라지기까지 약 400년 동안 약 60명의 황제가 있었다. 황제 중에는 성군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있었지만 천하의 망나니가 많았고 황제 중 절반 이상이 암살되었다. 초대 아우구스투스 이후 제정의 초기 120년 동안에 10인의 황제가 섰는데, 그 중 7인이 자기 명으로 죽지 못했고 제정의 마지막 17황제는 모조리 피살됐다. 이런 과정에서도 로마는 계속 판도를 넓히면서 융성하였으니 기적이 아닌 수 없다.

로마는 오늘날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고 부르는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낸 역사상 최초의 나라이다. 로마 이후 글로벌 시대를 연 나라는 19세기의 영국과 오늘날의 미국뿐이다. 무엇이 로마의 글로벌 시대를 만들었는가? 내가 보기에는 첫째, 막강한 군대를 들 수 있다. 이것이 로마를 일군 원동력이었다. 둘째는 개인 재산권의 철저한 보호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셋째는 남을 포용할 수 있는 로마인들의 넓은 도량이고, 넷째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사상을 들 수 있다. 아무튼 로마의 역사는 재미있다. 이 책을 공부하면, 아마 마음이 넓어지고 오늘의 세계를 아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원고-2>

“왜 그의 손을 잡지 못했을까”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

한승헌(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정치범과 같은 양심수 변호에 힘을 기울이며 민주화 운동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그는 냉철한 법조인이면서도 따뜻한 유머를 잃지 않는 인품으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한 방송사에서 작가 공지영 씨를 처음 만났다. 그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에서 대담을 했는데, 호감이 잘 맞아 즐거웠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나의 소감에 그도 반색하며 동감을 표시했다. 나는 그가 여성 작가로는 드물게 과거 운동권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목을 해온 터였다. 그는 독서계권 풍미한 자신의 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선물했고, 나는 <산타클로스>으로 답례를 했다.

보통 선물로 받는 책은 모두 읽을 수는 없고 선별해서 읽게 되는데, 이 책은 완독했다. 베스트셀러라서가 아니라 ‘사형’이라는 주제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날 한국 엠네스티의 책임자로서 사형폐지운동에 참여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변호한 젊은이가 참으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충격도 체험했다. 또한 사형제도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반공법 편화에 걸려 아홉 달이나 징역살이를 한 고난도 겪었다. 이런 전력이 나로 하여금 이 책을 끝까지 읽게 했을 것이다.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봉사하는 교모를 통해 ‘윤수’라는 사형수란 알게 된 여주인공은 범상치 않은 그와 접점을 거둬하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한편, 사형제도에 대한 회의에 빠진다. 심리적 격랑을 헤치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던 어느 날 윤수는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죽어서야 수감의 풀린 사형수의 싸늘한 손을 잡고 주인공은 말한다. “그때 뜨거웠던 그의 손이... 왜 그때 웃으면서 그의 손을 마주 잡지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작가는 1997년 말 사형수 스물세 명의 처형 뉴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법의 이름으로 인간을 죽일 수 있다는 회의를 갖게 된 작가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실제로 구치소를 찾고 검사, 교도관, 신부, 수녀, 변호사, 사형수, 법학자 등을 만났다고 한다.

이 책이 많이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이 널리 퍼졌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영화도 성공하여 많은 관객이 들었다 하니 사형폐지운동에 더없는 이바지를 한 셈이다. 작가가 한국 엠네스티로부터 특별상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원로 여성 문인은 뭘 소린지 알아먹게 쓰는 문장, 미모, 사생활에 대해 내숭 떨지 않는 솔직함을 그녀의 매력 포인트로 지적했다. 최근 들어 그는 신문에 자기 사생활의 과거를 소설로 연재하기 시작했다. 기대와 격려가 교차되는 것은 그에 대한 많은 독자들의 따뜻한 사랑 때문일 것이다.

* 월간 샘터 [베갯머리 책] 필자 리스트

NO	필자명	필자 소개	소개 책자	비고
1	피천득	수필가	앙리 프레데릭 아미엘 [아미엘의 일기]	200507
2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	자고 러콜레르코 [게으름의 찬양]	200508
3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피터 드러커 [매일 보는 드러커]	200509
4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파에르 샴스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200510
5	염무웅	민족문학작가협회 이사장	함석헌 [섬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	200511
6	송자	대교 회장	릭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	200512
7	신수정	피아니스트	프랜시스 버넷 [소공녀] 생뱌쥬베리 [어린이왕자]	200601
8	이은택	연출가	일연 [삼국유사]	200602
9	박종규	영남대 법대 교수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200603
10	최태지	정동극장장	전원경 [짧은 영광, 그래서 더 슬픈 열흔]	200604
11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200605
12	이두호	만화가, 세종대 교수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와 코리아 1920-1940	200606
13	박동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미야우치 하루이치 [노년이 좋아야 인생이 아름답다]	200607
14	김우중	문학평론가	박원순 [내 작은 애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200608
15	조만리	스타커뮤니케이션, 여성신문사 회장	헨리 나우웬 [출루시는 하나님]	200609
16	조순	전 국회의원, 서울시장, 한국은행총재	인도로 몬타넬리 [로마제국사]	200610
17	김용준	고대 명예교수, 한국학술협외회 이사장	하이젠베르크 [부분과 전체]	200611
18	장사익	소리꾼	서정주 [미당 시집]	200612
19	문호진	뮤지컬 제작, 연출가	김동화 [기생 이야기]	200701
20	김성수	성공회 주교, 성공회대 총장	신영복 [감의]	200702
21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한승헌 [산민재담]	200703
22	한승헌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00704
23	김순진	21세기여성CEO연합회장/㈜농부 회장	미셸 트무니에 [뒤모습]	200705
24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핑크 [새로운 미래가 온다]	200706
25	이시형	신경정신과 전문의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몰입의 즐거움]	200707
26	안숙선	국악인	희명희 [흔들]	200708
27	한영숙	전 국무총리/국회의원	김나미 [파란 눈의 성자들]	200709
28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법대 교수	프란시스코 시오넬 호세 [에르미타]	200710
29	김윤식	문학평론가 / 명지대 석좌교수	게오르크 루카치 [소설의 이론]	200711
30	김홍신	소설가 / 전 국회의원	법론 [답답하면 읊어라]	200712
31	김금실	전 법무장관 / 우일아이비서 고문변호사	이인성 [감 어귀에 섬 하나]	200801
32	김병중	중앙화가 / 서울대 미대 교수	조윤선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안다]	200802